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진화율 95% 목표 “19일 완전 진화 기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튿날인 18일 진화율이 80%대를 보이면서 내일 중 완전히 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은 18일 오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전날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쪽) 화재의 진화율이 80% 상당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2시께 진화율이 85~90%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일몰 전까지 95% 상당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진화율이 90%대를 넘어가면 국가소방동원령 단계 하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불이 난 2공장 내부 고무 자재를 덮는 위폐 작업에 따라 완전 진화는 내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불이 처음 난 정련동에 쌓인 생고무 20t 가량이 모두 타야 하고, 겹겹이 쌓여있는 불길의 높이가 14만925㎡ 규모의 2공장 여러 건물로 빠르게 확산해 공장 일주일 이상 결될 것으로 봤다.

예상보다 불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2공장에서 1공장으로 더 번지는 것을 막은 게 주효했다. 1공장은 타이어 완제품을 보관, 자칫 불길이 옮겨 붙었다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다.

소방 당국은 추가 연소 방지 조치도 마친 상태로 전소 우려가 컸던 2공장 내 피해율도 잠정 추산 60%대로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용수 공급 부족에 따른 진화 난항이 예상됐으나 이날 현재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2일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스

낮 12시 85~90% 전망...일몰 전 95% 진화될 듯 90%대 넘어서면 동원령 단계 하향 건의 예정

앞서 전날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대피 도중 20대 직원 1명이 추락, 머리·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는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불길은 생고무 20t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장 건물 여러 개를 집어삼키며 하루

종일 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생고무 연소에 따른 분진이 인접 지역으로 날렸고 광주 전역에 매캐한 연기 냄새가 퍼지기도 했다.

공장 인근 아파트 4곳 주민 30여 명은 광주여대 체육관으로 대피했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 지자체도 주민 2차 피해를 확인하는 대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뉴스시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가 18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열린 현장브리핑에 참석,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시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 화재 현장에서 고개 숙여 사과 “주민 불편 최소화, 화재 진압 최우선”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가 18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진심으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빠르게 화재를 수습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모든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현재 공장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 이런 일이 재

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20대 직원 1명이 대피 도중 추락, 머리·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불길은 생고무 20t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장 건물 여러 개를 집어삼키며 하루종일 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생고무 연소에 따른 분진이 인접 지역으로 날렸고 공장 인근 주민 182명이 광주여대 체육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피해 신속 복구해야”

이재명, 금호타이어 이재민 대피소 방문... 주민 위로 방문 “화재 부상자 빠른 쾌유... 화재 피해 신속하게 복구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대피소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께 금호타이어 화재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을 방문했다. 화재 피해 현황에 관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이 후보는 “아주 빨리 신속하게 대응 잘하셨다”며 박 구청장을 격려했다. 이후 체육관 내부에 설치된 이재민 텐트를 돌며 시민들을 위로했다. 이 후보는 방문을 마친 뒤에 취재진과

만나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공장 부상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화재가) 진화되고 부상자는 빠른 쾌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신속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늘음이나 이런 피해들도 신속하게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는 “소방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화재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뉴스시스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기간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 화재 등 국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점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뉴스시스

전남 초미세먼지농도 전국 최저... 작년보다 8.8% ↓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4개 부문 18개 과제 추진 성과

전남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 14.5,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농도(15.9㎍/㎥)보다 8.8% 줄었다.

전남도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4개 부문 18개 과제별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하며 관리했다. 우선 미세먼지 다배출 차량 345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공회전을 집중 단속했고, 공사액 100억 원 이상 관공공사장 37곳을 방문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점검했다.

또 드론,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등 첨단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통해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를 상시단속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 449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여수 석탄화력발전소 2기의 최대출력을 80%로 제한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도 시행했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과 영농 폐기물 수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43만4000t의 영농 잔재물을 수거·처리했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50㎍/㎥ 초과) 발생 시 경보발령 등 신속한 조치도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고품속 일수 증가와 정체일수 감소 등 유리한 기상여건이 형성된 점도 초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 12.3로 전국 평균 보다 21.2% 낮고 전국최저수치치를 기록했다. 2015년에 비해 50.4%(24.8→12.3㎍/㎥) 줄었다. /오권철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